

라오스에 '공생 청소년센터' 건립 지구촌공생회, 라오스 미래 초석 놓기 활발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라오스의 미래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지구촌공생회는 3월 16일 기공식을 가진 데 이어 7월 31일까지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싸이타니구 텃밭마을에 '공생 청소년센터(Good Hands Youth Center Laos)'를 건립한다.

1인당 GDP가 400달러에도 못 미치는 동남아 최빈국 라오스에서 자녀교육은 먼 나라 이야기. 싸이타니구에는 현재 3000여 학생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노동시장에 내몰려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에 가더라도 재학생 10명 중 한, 두명만이 교과서를 갖고 있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게다가 태국, 중국, 베트남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한 라오스의 지리적 특성으로 외국문화가 넘쳐 청소년들이 민족정체성을 잃는 사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이러한 라오스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을 통해 라오스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생 청소년센터'에는 크게 △도서관 △외국어 교육실 △라오스 문화 교육실로 구성된다.

모국어 서적의 절대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 어린이 서적을 선정, 라오어로 번역작업을 실시하며, 번역된 도서는 지구촌공생회 라오스 지부가 지원하는 각 초등학교 도서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어·영어 등 외국어 교육, 노래와 율동, 단체게임 등 다양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라오스 어린이들의 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라오스 현지에는 지구촌공생회가 2004년 11월 첫 해외사업으로 시작한 공생유치원을 비롯해 3월 24일 완공된 도서관이 자리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은평새길 평창터널 수행 환경 침해 우려

서울시 발표 후 환경단체 일제히 반발... 화계사·옥천암 인근 포함돼

서울시가 서울 은평 뉴타운 등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북한산과 북악산 관통도로 건설계획이 사할 수행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5월 11일 은평구-종로구(은평새길), 종로구-성북구(평창터널)를 연계하는 2개의 도로를 민간투자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10년 착공해 2013년 개통을 목표로 한 간선도로 1축 '은평새길'은 노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부 설계에 들어간 상태. 은평뉴타운에서 부암동 하림까지 길이 5.7km, 왕복 4차로 구간 대부분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지나가는 1축 계획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당시 사패산터널 논란을 상기시킨다.

2축 '평창터널'은 신영삼거리에서 성북동길까지 왕복 4차로 2.89km로 현재 서울시 공고를 통해 사업자 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 3축 '중앙간선도로'는 수유동 화계사 인근에서 가회동 감사원까지 길이 왕복 4차로 6.8km구간에 걸쳐 있다. 3축 계획안은 현재 서울시 내부 검토 중으로 건설계획 발표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0년 하반기 착공해 2013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이들 사업은 3909

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GS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돼,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 단체들은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서울시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부동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은평새길'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사패산터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허용되는 마지막 터널이라고 공언했다"며 국립공원 사수 의지도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 민자사업팀장은 "북한산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부분은 논밭으로 현재 개발이 된 상태로 문제될 것이 없다. 흥은동 옥천암을 비롯한 지역 사할 또한 터널로 지나기 때문에 수행환경 파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인구 밀집지역을 지나가는 터널은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침식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자연공

원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인근 주민 환경권도 침해할 수 있다. 노선 공사 진행시 인근 사할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먼저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천암 주지 정범 스님은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 개발정책 전반에 큰 오류가 있다. 현재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개발을 밀어붙이고 상하수도 와 도로가 필요하니 다시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식은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 및 천성산 터널 공사 당시를 들어 정부 추진 사업의 경우 시공계획이 완료된 이후에는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불교계 재산권과 환경과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기회와 논의과정, 사업자선정, 시공 등 전반에 걸쳐 충분한 협의과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되새겨 보는 사패산 터널의 교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난 완화, 수도권 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착공했다. 1993~2001년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단계인 일산-퇴계원 사이 36km 공사가 1996~2006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사패산 터널 공사와 관련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합의주체들은 2002년 노선조사위원회 구성하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터널 공사는 중단됐다. 이듬해 불교계와 환경단체 대표로 조계종이, 사업시행자를 대표

해 건설교통부가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2003년 4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위원회는 우회노선, 문화재 평가 등의 협의 절차에 들어갔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정부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정부는 개별사할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방법을 동원하는 동시에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여론 확보에 주력, 찬성 여론이 형성되자, 2003년 12월 공사를 재개했다. 2007년 12월 사패산 터널 완공 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사회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 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 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 Hands Youth 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 Dream 꿈 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새 연재 '탐욕의 경제학'에서 '자족의 경제학'으로
13면 허달의 '불교와 코칭'



희망의 씨앗이 되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은 6월 3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의료비 지원금 7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상임이사 대오 스님(사진)은 "이 지원금이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원한다"며 지원금 전달과 함께 신생아실 중환자실을 찾아 입원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렸다. 박재원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14 도업 스님



인터뷰 ▶8 세민 스님

법구경
이 세상에 태어나 보람된 일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문의 02)722-1850

기죽면(은!) 삼시술례와 방생법회는 운정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011-336-4665
대만불교조계종 천진교할 소속인 용문사

얼레과일 두리알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창달원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천태산 통천도량 무량수궁 마애아미타불점안대법회 및 산사음악회. 만등불사

天台山 通天道場 無量壽宮 磨崖阿彌陀佛點眼大法會 및 山寺音樂會. 萬燈佛事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보살님 전에 국대민안과 불교중흥을 기원 드립니다. 다가오는 윤5월6일(양력 6월 28일) 오전 11시, 천태산 통천도량 무량수궁에서 마애아미타불점안대법회 및 만등불사를 봉행하오니 전국의 불자들이께서는 무부 동참하시어 금생에 선공덕으로 무량대복을 누리시고 누세에 쌓인 업장에서 해탈 열반 낙을 성취하옵고 선망부모조상영가님들의 극락왕생 발원 하시옵기를 마애아미타불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제불보살과 팔부신장이 응호하고 제방의 선지식과 고승석덕들이 증명하시는 아미타영험도량으로서 사바의 고히에서 고통 받는 유정무정의 일체중생들의 안식처가 되고 무명업장을 해탈하여 열반을 성취하는 정토도량인 천태산 통천도량 무량수궁 마애아미타불점안대법회 및 만등불사에 동참 발원하여 소원성취 하시옵기를 합장하옵니다.

불기 2553(2009)년 6월

일 시: 불기 2553년(2009) 음력 윤 5월 6일 (양 6월 28일)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경남 양산시 원동면 1003번지 천태산 천태사
식 순: 1부 - 점안식 오전 10시 / 2부 - 법요식 오전 11시
3부 - 산사음악회 12시 (사회: 마당놀이 인간문화재 김중업)
연락처: (055)382-5515



미타불본신상과 좌우협시보살님 (전체 상하 약16m)

천태사와 아미타불 불사

옛날부터 천태산은 천성산, 영축산과 함께 양산의 3대 명산으로 이름난 곳일 뿐 아니라 천태산 천태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 창건 사찰로서 지방문화재 제38호 아미타불 좌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천태산상 독수선전 내반존자 기도제일 영험 기도도량으로서 근세에도 경보 대위 큰스님 등 고승대덕이 이곳 도량에 기도 및 법화삼경을 한 강경도량이었습니다. 천태산은 양산 8경의 하나로서, 천태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낙주는 필설로써 형언할 수 없는 장관입니다. 소남이 이곳에 인연의 발길이 닿아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기도의 원력발원으로 가람을 복원 중수하고 도량을 기꾸어 오던 중, 9년 전 아미타불이 강림하여 일체중생의 정토도량임을 현몽하였습니다. 마애아미타불 조성원력을 세우고 5년여에 걸쳐서 기도정진하면서 신심 있는 불자들이들의 정성과 소남의 각고정진 끝에 윤 5월 6일 점안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애아미타불 점안대법회 및 만등불사
동행위원장 천태사 주지 천산 진우 합장
www.chuntaesa.com
만등불사 1인 1등 1만원
(우체국 310037-02-001951 예금주 김광희)